보물상자

새 생명의 문을 열어라

- 영원한 삶을 향한 길 이관홍
- 미디어가 묘사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 김민수
- 준비하는 자에게는 죽음도 축제다 편집부
- 청소년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다 김유정

11월호 보물상자는 위령성월을 맞아 새 생명으로 향하는 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다.

그동안 우리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이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막고 살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호 보물상자가 '죽음'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바꾸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영원한 삶을 향한 길' 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스도교적 가르침을 정리했고, **'미디어가 묘사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 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죽음의 문화를 짚어 보았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죽음도 축제다'** 는 위령 성월 교리 교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죽음을 이야기하다'** 에서는 생명과 죽음을 주제로 다양한 교육과 캠프를 진행해 온 '행복한가정운동' 대구 지역 대표 장경화 씨에게 청소년 죽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영원한 삶을 향한 길

이관홍_바오로 | 신부_대구대교구 하양 성당

죽음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죽음은 생명 안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존재의 조건으로 스며들어 있다. 죽음의 체험은 과중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몹시 꺼리며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즉각 거부 반응을 보이곤 한다. 또 죽음을 남의 일로만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의 새로운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몰랐던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실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힘의 원천으로 변화시키셨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원죄를 비롯한 크고 작은 죄를 용서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즉, 죽음의 세력이 생명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사도 바오로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1코린 15, 54-55)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죽음을 겪으셨고, 그 궁극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고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라며 죽음을 거부하신 듯했지만, 이내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마태 14, 36) 라며,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셨다.

죽음을 단순히 유기체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생물학적인 종말로만 간주한다면, 죽음은 절망이나 숙명에의 체념만을 조장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자기 봉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길임을 알고, 삶에서 죽음을 위한 준비, 즉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면 죽음은 경신례보다 더 숭고한 행위가 된다. 그렇게 준비한 자만이 또 다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삶을 향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죽음은 생명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헌신과 순종과 사랑으로써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같다. 이것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당신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모든 악행을 파괴하는 힘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죽음은 역설적으로 고귀한 행위, 생명의 정점이 되고 실제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관문이 되었다. 따라서 죽음은 열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편이 훨씬 낫습니다." (필리 1, 23)라고 고백하였다.

죽음 이후 사랑으로 심판받는 사람들

현세의 삶이 끝날 때, 즉 죽음의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충만히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하느님의 사랑은 그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다르게 되며, 그분을 배척한 모든 사람에게도 단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원 심판은 보편성과 충만함 속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통합되어 행복을 누리게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몸의 광채가 부활한 사람들 위에 비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에서 이것은 '공심판' 이라 전승되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야말로,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했던 선행이나, 악행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불려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세상을 마칠 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한 5, 28-29).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맥없이 무너진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이 지상 불행의 한계를 넘어서, 행복한 목적을 위하여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이야기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구세주께서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로 내려진 죽음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분께 대한 믿음만이 그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셨다. 이 승리는 죽음에 대한 해답을 주며, 미래 운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준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며, 그들은 이미 하느님 곁에서 참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는 희망도 준다.